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필요”

군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토론회 개최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발달장애 성지(聖地)로 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조성돼 운영 중인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학습관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역할 확대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군산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꽃보다 우리’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학부모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수강생들의 난타와 댄스 학습 발표 및 폐널과 참석자간의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패널로 참여한 장영재 교육지원과장은 그동안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운영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다음 패널로 나선 정연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정착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자 시의원은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생활을 응원하는 모임 이마라 대표는 전주시 발달장애인들의 요구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발달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송영숙 대표는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시종일관 자리를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세계인권선언문 1조와 2조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고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처럼 발달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역할 확대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어도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학부

모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군산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발전정책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인기

남부시장 2층 1호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익산시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곳은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의 돌봄 기능을 특화해 내며 가정양육과 맞벌이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육아 기능을 넘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은 물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퇴직한 전문 인력 투입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시장 2층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수업은 엄마들

의 재능기부로 오감발달 프로그램인 ‘보잉뮤직’과 ‘두리우리 놀이체육’ ‘엄마표 놀이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품앗이 회원들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부모의 소통창구 역할 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덕분에 나눔터에는 1일 평균 30여 명의 유아와 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8천400여 명, 올해 9월 기준 6천6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꾸준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2호점은 장신지구 휴먼시아 단지 내에 문을 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에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밤 9시까지 운영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남부시장 2층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 청년 창업지원 사업 박차

동네책방·수제맥주 등 아이템으로 남부시장에 활력

익산시가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청년창업지원사업 을 위한 ‘청년역사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창업해 기반을 다지고 있는 ‘오늘도 공유일’, ‘베이커리 한발’에 이어 새로운 청년역사꾼 2팀이 남부시장에서 18일 개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창업하는 청년역사꾼은 책, 문화, 가치, 공간을 공유하며 여남노

소 책으로 만나 이야기를 꾸미는 공간인 동네책방 ‘두번재집’과 남부시장의 대표 아이템인 시장통닭과 함께 새로운 먹거리에 도전하는 수제 맥주 제조·판매업체 ‘솔리맥주’이다.

“10월의 어느 멋진날, 오래된 시장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청년역사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이번 개업식은 청년역사꾼들의 창업 콘텐츠

및 활동계획 소개, 음악공연과 토크 등 시장이라는 익숙한 공간이 색다른 경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역사꾼 사업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역사꾼 사업은 2017년부터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 중인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

군산시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17일 시 보건소(소장 전영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 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직원 및 금연지도원 18명 8개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과 함께 전자담배의 해로움을 알리는 캠페인도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 점검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연면적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아파트와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이며 민원다발업소인 pc방 등의 업소는 야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주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고시지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공공급식 지킴이단 초청 소비자 농촌체험행사

군산시가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농촌체험행사를 실시하며 관료에게 알선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군산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도시 소비자층을 초청 농촌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초청 대상은 ‘서울 은평구 공공급식 지킴이단’으로 은평구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유해물질로부터 사전 차단해 안전하고 신선한 농

산물 공급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이를 방문한 공공급식 지킴이단은 군산시 농산물가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견학하고 고구마 수확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은평구 소비자 초청단은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만 믿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또한 18일에도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단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업체류 생산농가와 우렁농장을 방문해 군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근대화거리에서 군산의 역사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예정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 농촌 체험 행사를 통해 군산에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에 대한 생산 및 유통단계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어르신 1500여 명 참석

익산시는 17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사)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가 주관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시의원, 관내 기관·단체장과 어르신 1,500여 명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행사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일 앞장서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초대가수와 품바 공연으로 흥

을 돋웠으며 한마음 풍선 기동 만들기, 나는 양탄자, 건강운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류창현 (사)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장은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노인의 날 행사가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의 날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든 법정기념일(10월 2일)로 지난 1997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흥보사 하지원